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주요 제안내용

□ 남해 장묘문화 발전 방안

1. 공원묘원 조성 시 자연경관 좋은 곳 지양하고, 인근 지역들을 묶어서 권역으로 조성

가. 관광지로 유명한 우리군의 주요 명소에 공원묘원이나 초소 등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나. 공원묘원이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관광업의 발전을 위해 향후 공원묘원 조성 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되도록 자연 경관이 좋은 위치는 지양해서 조성해 주기 바람.

2. 자연장과 평장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추진 및 군민홍보 강화

가. 시대에 따라 장묘문화도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으나, 현재 조성되어 운영되는 평장을 잘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

나. 이처럼, 담당부서에서는 자연장과 납골평장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및 군민홍보에도 노력해 주기 바람

3. 추모누리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 운영 및 가드레일 설치

가. 연죽 저수지에서 추모누리로 진입하는 도로의 경우 도로의 커브도 심하고 어두워 위험한 경우가 간혹 생김

나. 가로등을 설치하여 도로가 잘 보이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해 안전을 강화해 주기 바람.

4. 지역 공원묘원 재정비시 전문가 및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가. 신규 공원묘원 조성 시 공무원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말고 관련 전문가나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주기 바람.

5. 공원묘지 개발완료 후 참여한 관계자를 기재한 완공 표지석 조성

가. 공원묘지의 개발이 완료된 후 건축물 실명제와 같이 완공 표지석을 세워 이후에도 누가 조성에 참여하였는지를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